

2011 새해에는

6 조창현 광주신세계 총괄임원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백화점으로

“이제 백화점은 고객의 행복을 창출하는 장이 돼야 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로 고객이 행복해지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광주신세계의 새로운 수장이 된 조창현(48) 총괄임원의 각오다.

광주신세계 백화점 개점 당시인 1995년 영업팀장으로 광주와 인연을 맺었던 그가 15년 만에 광주신세계 수장으로 화려하게 복귀를 했다.

조 총괄임원은 오는 3월 열리는 주주총회를 거쳐 대표이사로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조 총괄임원은 “개점 당시까지만 해도 광주 경제생활의 중심지는 금남·충장로 일대였지만 그 사이 삼부지구, 금호지구, 풍암지구를 비롯해 최근 수반지구까지 다핵화된 도시로 많은 발전을 이룬 것 같다”며 “지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생활, 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욕구도 한층 다양해져 광주신세계의 역할도 그만큼 늘어난 것 같다”고

신임 수장으로 열정을 내비쳤다.

또 “강력한 카리스마보다는 직원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이끌어내는 창조적인 리더십으로 광주신세계를 이끌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광주신세계 백화점을 고객이 행복한 백화점으로 만드는 것과 함께 호남의 랜드마크로 차원 높은 생활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와 차별화된 하드웨어 시설이 필요하다고 조 총괄임원은 강조했다.



고객의 만족과 행복 추구 생활문화 공간 만들겠다

조창현

조 총괄임원은 “이제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필요한 시기”라며 “지난해 백화점의 단골 고객들의 카드 매출을 살펴본 결과 서울 등 타지역 점포에서 250억원의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금 매출까지 더할 경우 1000억원에 이르는 돈이 타지역으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총괄임원은 광주신세계 백화점이 시설 등 하드웨어 부분이 뒤처지면서 유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민의 욕구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 총괄임원은 “신세계 강남점과 경기점, 부산 센텀시티점, 영등포점이 리모델링 등으로 대형점포로 규모를 확대해 고객만족도를 높여가며 새로운 성장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백화점이 단순히 상품 판매만 하는 곳이 아닌 고객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생활문화공간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대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조 총괄임원은 광주신세계가 지역민의 사랑과 관심으로 출발한 현지법인인 만큼 지역친화 경영도 강화할 생각이다.

조 총괄임원은 “기업으로서 수익창출에만 집중하다 보면 단기적인 성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며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는 현지법인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뢰와 소통은 조 총괄임원의 경영철학이기도 하다. 이는 조 총괄임원이 직장생활 24년 만에 수장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도 작용했다.

조 총괄임원은 “직원들의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열린 조직을 만들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받는 광주신세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광주신세계가 진화할 수 있도록 지역민과 지역사회에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사진=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역소리’ 나는 위스키 16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세계 판매1위 싱글몰트 위스키 글렌피딕의 ‘글렌피딕 빈티지 컬렉션’ 출시행사에서 모델들이 최고급 한정판 싱글몰트 위스키 4종 13병을 선보이고 있다. 총 판매가격은 약 2억 2610만원이라고 글렌피딕은 밝혔다. /연합뉴스

뛰는 금리 휘는 가계

이자부담 커져 부채 연착륙 해법 시급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석 달째 두 차례 인상되면서 은행 대출 금리도 전방위로 오르고 있어 가계의 이자부담이 커지게 됐다.

집주인의 전세금 인상 요구로 대출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세입자들은 이중고에 처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의 잠재적 불안 요인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급증세를 둔화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기존 가계부채가 부실화되지 않고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제대로 빌릴 수 있도록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과 함께 서민 금융지원 확대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택·신용·기업대출 금리 전방위 인상=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번 주초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연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1주일 전보다 0.12%포인트 인상한 연 4.32~5.64%로 고시했다. 두 달 전과 비교하면 0.2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신한은행은 주택대출 금리를 연 4.52~5.92%로 고시해 1주일 전보다 0.12%포인트, 두 달 전보다 0.26%포인트 높여졌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3영업일 평균 CD 금리를 대출 기준금리로 사용하고 있어 CD 금리에 변화가 없다면 이들 은행의 주택대출 금리는 오는 18일 0.06%포인트 추가 인상된다.

신용대출의 경우 우리은행의 대출 금리가 이번주에 연 6.07~9.02%로 0.12%포인트 인상되면서 최고 금리가 9%를 넘어선다.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신용대

출 금리도 연 5.60~8.21%와 6.38~8.28%로 각각 0.10%포인트와 0.18%포인트 인상된다.

◇전세에 금리 인상까지-세입자 ‘이중고’=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일제히 올라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은 이중고에 처했다.

국민은행의 6개월 변동금리형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지난 14일 기준 연 5.09~6.39%에서 이번 주 5.19~6.49%로 0.10%포인트 인상된다.

우리은행의 우리전세론 금리는 이번 주초에 연 5.12~5.84%로 지난 13일보다 0.12%포인트 오른다. 신한은행의 신한전세보증대출 금리도 연 5.22~6.72%로 0.12%포인트 인상된다.

기존 대출자들도 시름이 깊어지기는 마찬가지이다. 특히 전세금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가 많은 가운데 대출 금리마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은행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급증했다.

◇개인 금융빚 980조 육박-“금리충격 완화책 필요”=대출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예컨대 그동안 저금리에 기대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는데 금리가 오르면 집을 사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받으려는 수요가 억제된다. 하지만,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면 가계의 대출과 이자 상환부담이 가중된다. 이에 따라 소비가 줄어들면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주택시장 침체와 맞물리면 가계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주간 증시 포커스

자동차 등 실적 호전 입증 대표주 중심 포트폴리오를

코스피는 7주 연속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코스닥의 랠리도 4주째 이어졌다.

주 초 국내증시의 발목을 잡았던 포르투갈발 남유럽 재정위기는 ECB의 공격적 개입과 중국·일본의 유로존 채권매입 시사로 일찌감치 수그러들었다.

한국은행의 기속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1조 2000억 원이 넘는 옵션만기일의 프로그램 매도물량도 코스피의 거침없는 행보를 막지 못했다. 14일 저녁 중국 또한 기준을 인상 50bp를 단행했으나 이번 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이제 코스피는 심리적 부담감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지만, 글로벌 경기회복과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강하다.

따라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나 옵션만기일 대규모 프로그램 매물 출회 등의 영향력도 추세가 아닌 장중 변동성 이슈에 그쳤다.

월요일과 화요일에 예정된 유로권 재무장관 회담에서 포르투갈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구제안이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충과 같은 포괄적인 대책이 추가된다면, 경제심은 더욱 누그러질 것으로 판단한다.

비록 미국은 고공 없는 성장이 불가피하겠지만, 베이비붐의 경제정가에서 드러난 것처럼 적극적인 당국의 경기 부양외에도 나름대로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금주 주택관련 주요 지표들도 개선세가 예상된다. 따라서 지수의 상승향향을 기대하는 시각은 그대로다. 다만, 장세 대응을 위해 점검이 필요한 미묘한 변화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첫번째는 인플레이션 우려의 상승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그 적시성 여부를 떠나 당국의 강한 물가안정 의지를 확인시켰다. 더욱이 이번 주에는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일단 12월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지난해에 비해 상승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최근의 유가 및 곡물가격 상승 등은 각각의 인플레이션 대비 필요성을 높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부가 종합적인 물가 대책을 내놓음에 따라 향후 개별 기업들의 득실도 따져봐야 한다.

두번째 점검 요인은 본격화되는 기업들의 실적이다. 이번 earnings 시즌은 이익모멘텀 확보를 통해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 매력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과거 두자리 수의 PER 수준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둔화되었던 점과 지난해 외국인들의 주안 섹터인 IT·전자·화학·에너지·IT·은행 내 대표주 중심

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본격적인 4분기 실적 시즌으로 돌입하는 만큼 실적 호전 업종인 자동차·화학·에너지·IT·은행 내 대표주 중심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미나리 추출물 음료·화장품 등 잇따라 출시

경북 청도에 분사를 둔 농업회사법인 새얼바이오휴드(주)(대표 최준영)가 국내 최초로 미나리 추출물인 ‘A+ 간편한 미나리의 소망’을 출시했다.



“A+ 간편한 미나리의 소망”은 물이나 술 등에 희석해 마실 수 있는 제품으로 미나리 착즙(액기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양 손실을 줄이기 위해 추출 방식으로 생산했다. 일체의 색소와 향료, 안정제, 보존료, 탄산성분 등을 첨가하지 않은 5무(無)를 실현해 다른 음료와 차별화했다는 것이 업체의 설명이다. 또 미나리 추출물과 헛개나무 열매 추출물을 혼합한 숙취해소 음료 ‘A+ 간(肝)편한 미나리’도 선보였다.

한편 새얼바이오휴드(주)는 미나리를 이용한 천연비누, 화장품, 스포츠 이온음료 등도 개발해 시장 출시를 앞두고 있다.

생약재·해조류 물질로 탈모 막고 두피 회복

천연 생약재와 해조류에서 추출한 나노단위 물질로 탈모로 인해 손상된 모발과 두피의 회복을 도와주는 헤어제품이 출시됐다.



바이오벤처 JW바이오휴드(대표 박영호)가 스페이 타입 두피모발 개선제 ‘JW12’를 선보였다. ‘JW12’는 저온(50~60℃)에서 미역, 다시마 등의 해조류와 10여 가지의 생약재료, 곡물류를 추출해 만든 헤어제품으로 모근 회복과 모발성장에도 도움을 준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JW바이오는 7년 연구와 실험 끝에 이 제품을 개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탈모 방지와 약모 및 육모에 대한 효능으로 의약품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해 5월에는 관련 특허 5건을 출원·등록했다. 문의 홈페이지 www.jwtaimo.com 1577-1207.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무안 관광 직항 마지막 찬스

한겨울에 즐기는 정글투어 or 섬머크루즈

799,000 원 (단, 대인 소아 요금 동일)

관 일정표(PKG) 3박 4일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간	세부일정	식사
제 1 일	무	안	관	CO991	08:50	무안 국제공항 출발.	L:기내식 D:BBQ
					13:55	[4시간 정도 소요, 시차는 1시간 바름] 광안리 국제공항 도착 입국/세관 신고후 공항 밖에서 현지 가이드 미팅. 전용차량에 탑승하여 호텔로 이동 및 투숙. 석식(후지메이칸그릴 - BBQ) 호텔 투숙.	
제 2 일	관	전용차량			09:00	조식후 광안리관광 시작. (사람의 정령, 파세오공원, 광정부처상, 아가나전망대, 스페인광장, 니미치힐) *중식(호텔 비치바에서 샌드키트 & 아이스티) 자유시간에 무동력 해양 스포츠 (카누, 카약, 스노클링)을 즐길수가 있습니다. 호텔투숙 - 석식후 호텔 투숙.	B:호텔식 L:호텔식 D:한식
					13:00		
제 3 일	관				09:00	조식 후 섬머크루즈 또는 정글리버보트 택1 관광 *섬머크루즈: 낚시대는 파도를 가르며 물고기를 찾아 떠난다. 연인과 가족 모두 아름다운 바다에서 즐기는 즐거운 시간. 물놀이와 낚시에서 제공하는 잡치와 샌드위치, 카약, 스노클링, 다양한 체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글리버보트: 일본의 패전반 요코이가 2년간 숨어살았던 탈로포 포리에서 정글리버보트를 타고 정글탐험을 할수 있으며, 원주민들이 보여주는 코코넛쇼와 직접원주민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총치기 마세오 돌 중 택일 포함입니다. 단, 섬머크루즈는 오후 1시 20분, 정글리버보트는 오전 오후 택일 (단, 가이드에게 미리시간을 신청하세요) *중식(마기리타 - 스테이크) 석식 후 호텔투숙.	B:호텔식 L:스테이크 D:한식
					18:00		
제 4 일	무	안	관	CO990	09:00	조식 후 아가나미치 해안산책로 구경 및 해양스포츠카누, 카약 등 즐기 *중식(호텔 비치바에서 샌드키트 & 아이스티) 가이드와 미팅 후 공항으로 이동 - 광출발. 무안 국제공항 도착후 각자 해산.	B:호텔식 L:호텔식 D:기내식

※상기 일정은 항공스케줄 및 현지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약문의 롯데JTB첨단점 첨단롯데마트 2F 062-973-9114
클럽모두 동광주홈플러스 B1 062-269-9363

당사는 관광진흥법, 소비자보호법, 중요 광고표시 등에 관한 고시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등에 명시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필수 경비 포함: 여행보험(해)의 1억원, 국내 5천만원, 관광보험기금, 공항이용료, 안내원비용 2억 보증보험 가입(보통기간: 2010년 12월 7일~11년 12월 6일) 경비없음(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박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광주시 북구 두암동 575-1 홈플러스 동광주점 (주)클럽모두 해외여행업 등록 최소 출발 인원: 2명 / 속: 2급호텔 이상 / 교통편: 항공 및 버스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유류할증료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